벤처혁신연구 제7권 제3호(통권20호)
Journal of Venture Innovation, Vol.7. No.3 September 2024, pp.141-157
http:www.kavi.or.kr
https://doi.org/10.22788/7.3.8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 재정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의 영향

김현배 ((전)인천대학교 IPP 전담교수)[1)] 이수진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강사)[2)]

국 문 요 약

창업이나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창업실패두려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MZ세대를 대상으로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재정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을 설정하였다. MZ세대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실증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적요인(가용자금부족), 심리적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은 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동적요인(힘든일회피)과 실패두려움간의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스트레스회피, 위험회피, 가용자금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실패두려움은 MZ세대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실패두려움은 심리적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및 행동적요인(힘든일회피)과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적요인인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의도간 매개효과는 검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의도 관련 연구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MZ세대의 창업의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MZ세대, 창업의도, 창업실패두려움, 재정적요인, 심리적요인, 행동적요인

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창업은 경제 성장과 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MZ 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기술적 진보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 과정에서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이들의 창업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며, 특히 재정적, 심리적, 행동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Al Halbusi et al.,2024).

기존 연구들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다루어 왔으며(Games et al., 2023), 특히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MZ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MZ 세대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직결될 수 있다. 또한 MZ 세대가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특성들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

1)제1저자 : (전)인천대학교 IPP 전담교수, zirokim@naver.com
2)교신저자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sjlee@sungkyul.ac.kr
· 투고일: 2024-08-27 · 수정일: 2004-09-24 · 게재확정일: 2024-09-25

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는 주로 재정적 요인에 집중되어 있으며(Tehseen et al., 2021), 심리적, 행동적 요인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Zhao et al., 2021). 따라서 MZ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재정적, 심리적 및 행동적 요인이 창업실패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의 심층 분석을 통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창업 의도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칠 재정적 요인(가용자금부족), 심리적 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행동적 요인(힘든일회피)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이 두려움을 완화하여 MZ 세대의 창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MZ세대와 창업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용어로 두 세대를 함께 지칭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2000년대에 성인이 된 세대로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분류된다.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디지털네이티브 라고도 불린다(Bhalla et al., 2021). 이러한 MZ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하여 디지털 친화성, 높은 교육 수준과 개방적 사고방식, 경험 중시와 속도 및 편의성 선호라는 특징을 가진다(이경화, 2024). 이 세대는 디지털과 급변하는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배경은 창업과 연관해서 몇 가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디지털친화성이다. MZ 세대의 디지털 기술 통합은 이들의 창업가적 접근 방식을 크게 좌우한다. 이들은 디지털 도구,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에 능숙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홍보한다. 이러한 디지털 능력은 기술 발전에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할 수 있게 해주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이경화(2024)는 MZ 세대의 창업가들은 단순한 기술 숙련자가 아니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 기술적 유창함을 비즈니스 감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여 민첩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창출한다고 했다. 둘째, 사회적 책임이다. MZ 세대의 창업가들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며 윤리적 소비, 지속 가능성 및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한다. 이들은 환경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인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비즈니스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들의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윤리적 실천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 기반과 공감한다. Bulsara & Sharma (2023)는 MZ 세대의 스타트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경험중심이다. MZ 세대는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며, 이는 이들의 창업에서도 반영된다. 이들은 고객에게 신속한 정보 접근, 맞춤형 서비스 및 효율적이고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러한 경험 중심의 접근 방식은 즉시성과 개인화를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한다. Hindrawati et al. (2023)은 MZ 세대의 창업가들은 개인화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강조하는 고객 중심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뛰어나다고 했다.

MZ 세대의 스타트업은 강력한 디지털 친화성,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 그리고 뛰어난 경험 제공 능력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MZ 세대의 창업가들은 혁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기술적 유창함, 윤리적 고려, 그리고 소비자 선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하여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MZ 세대는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창업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창업 과정에서의 동기와 도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MZ 세대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창업실패두려움(fear of startup failure)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 창업가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패를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며 사회적 및 문화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두려움은 기업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창업 의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Cacciotti et al., 2016; Lee et al., 2020; Lee et al., 2021).

2.2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실패두려움

가용자금부족(lack of accessible finance)은 벤처 캐피털, 정부 지원금, 은행 대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Marshall et al., 2020).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생존 가능성과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Tehseen et al., 2021).

이처럼 가용자금부족은 창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업자는 초기 비용 관리, 성장 단계의 운영 지속, 필요한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반면, 재정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여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할 수 있다(Caniëls & Motylska-Kuźma, 2023). 재정적 자원의 부족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재정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창업자는 잠재적인 손실을 흡수하거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재정적 자원이 풍부한 창업자는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손실 수준이 높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커진다(Caniëls & Motylska-Kuźma, 2023).

창업가들은 위험 회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와 고된 일에 대한 저항과 같은 심리적 장벽에 자주 직면한다. 심리적인 동기부여 내지 격려 등은 종종 창업활동에 있어서 촉매제로 여겨진다(Elia et al., 2020; Ferasso & Grenier, 2021). 하지만 자원 부족과 정부 지원 부족 등의 제도적 장벽도 창업가의 성공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도 창업가의 활동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Fattah et al., 2021). 따라서 재정 자본은 여전히 스타트업의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다(Marshall et al., 2020; Tehseen et al., 2021). 많은 창업가들은 자원을 조달해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은행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담보와 견고한 실적이 요구된다(Van Rijnsoever & Eveleens, 202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도 자금 부족이 창업행동에 큰 장벽이 된다고 했다(Fattah et al.,2022).

젊은 창업가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이는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에게 의존하게 만든다(Campopiano et al., 2017).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의 부족은 창업가의 역량을 제한하고(Morgan & Sisak, 2016), 젊은 창업가들 사이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Kollmann et al., 2017).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부족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위험회피와 창업실패두려움

위험회피(aversion to risk)는 잠재적인 손실이나 실패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Sahinidis et al., 2020).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창업자는 혁신적이거나 잠재력이 높은 기회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성장과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Zhao et al., 2021).

이와 같이 위험회피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창업자는 초기 사업 시작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장벽을 경험할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은 창업자는 창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여 창업 활동에 소극적이 된다(Al Halbusi et al., 2024).

Hofstede(1983)에 따르면, 낮은 불확실성 회피 수준을 가진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경쟁적이고 야망적이며 물질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돈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도록 장려된다. 반면, 높은 불확실성 회피 수준을 가진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위험 감수) 또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위험 회피)이 상당히 일관되며, 이를 위험 성향이라고 부른다(Zhao et al.,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 위험 성향의 일관성은 의문을 받아왔다. 이는 실증 연구에서 기업가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동시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Sahinidis et al., 2020). 예를 들어, 미국의 114명의 경영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Segal et al. (2005)는 위험 감수성이 기업가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위험 감수 경향의 차이는 다소 미미하게 나타났으며(Sexton & Bowman, 1984), 기업가의 높은 위험 감수 성향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Wang & Wong, 2004). 따라서 위험 회피는 창업행동에 대한 장벽으로 간주되며,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위험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스트레스회피와 창업실패두려움

스트레스회피(aversion to stress)는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Doerr, 2021).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창업자는 사업 운영에서 높은 압박과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 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 Halbusi et al., 2024).

스트레스 회피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adia & Abdelmegeed(2024)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회피는 이집트 기업가들 사이에서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Marjolein & Caniëls(2023)는 높은 스트레스 회피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창업 의도를 저해하고, 창의적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Doerr(2019)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회피와 같은 높은 강인성이 창업을 추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창업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들의 헌신도와 회복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Doerr(2021)는 금융 위기 이후의 스트레스 회피가 창업 활동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스트레스 회피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H3: 스트레스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힘든 일 회피과 창업실패두려움

힘든 일 회피(aversion to hard work)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을 피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Zhang et al., 2017). 힘든일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힘든일 회피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를 회피하거나 미루기 때문에 창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Sahinidis et al., 2020).

이는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또는 실패 시 받을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는 심리적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Rachel et al., 2024). 이러한 회피 행동은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장과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힘든일 회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창업 활동에서 힘든일 회피는 창업자의 목표 달성 능력을 저해하고, 이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킬 수 있다(Al Halbusi et al.,2024). 반면 높은 헌신과 힘든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실패두려움이 줄어들고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arradinna & Arlena, 2023).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힘든일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창업실패두려움(fear of failure in enterpreneurship)은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으로 인해 도전적이거나 위험이 따르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Boso et al., 2019). 창업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기회를 시도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Lin & Wang, 2019). 이처럼,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가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창업가의 의지, 행동 및 결과에 영향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두려움은 창업가정신을 억제하는 동시에 동기부여 역할을 할 수 있다(Tang et al., 2024). 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특정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희망과 회복력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은 이러한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Duong, 2022). 전반적으로 실패두려움은 창업가적 행동과 결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업가적 맥락에서 이 두려움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Games et al., 2023). 창업실패두려움이 독립변수로 사용된 경우에 의하면 창업실패두려움이 클수록 창업의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창업실패두려움을 완화하는 전략은 창업의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Al Halbusi et al.,2024). 창업에 있어 실패두려움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Kollmann et al. (2017)은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과 창업의도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패두려움은 창업열정, 동기부여, 창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Duong,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업실패두려움이 창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1: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것이다.
H6-2: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위험회피와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것이다.
H6-3: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스트레스회피와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것이다.

H6-4: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은 힘든일회피와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할것이다.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가용자금부족, 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힘든일회피를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창업의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인 관계는 그림1. 연구모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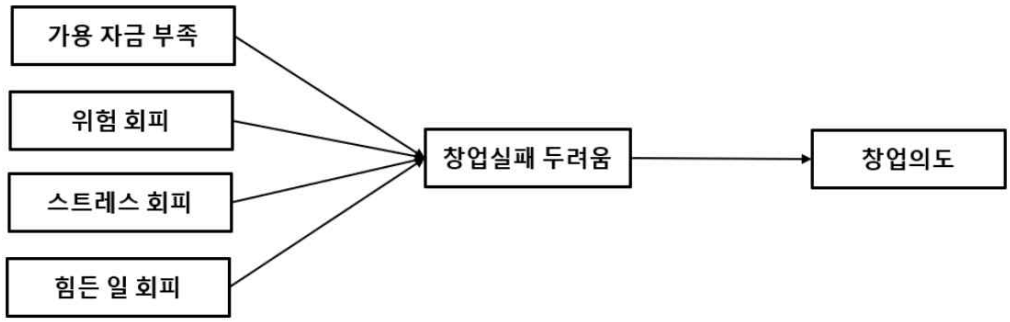

그림1. 연구 모형

3.2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39세 이하의 MZ세대(4년제 대학교의 1~2학년생을 제외한 3학년 또는 4학년 이상 대학생)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또는 연령 할당 없이 무작위 방식으로 설문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이중 유효한 20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측정항목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및 참고문헌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참고문헌
가용 자금 부족	금융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나는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낀다.	Marshall et al., 2020; Tehseen et al., 2021
		현재의 자금 상황으로는 내가 계획한 창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느낀다.	
		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해 내가 계획한 창업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창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위험 회피	잠재적인 손실이나 실패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	나는 창업을 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Sahinidis et al., 2020; Zhao et al., 2021
		창업을 통해 실패할 경우의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현재의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자 창업을 피하고 있는데, 이는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창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생각이 나를 막고 있다.	
		창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나 비용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트레스 회피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	나는 창업을 할 때 예상되는 스트레스 요소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Doerr, 2021
		창업을 통해 느껴질 수 있는 강한 스트레스에 대한 두려움이 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나의 능력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힘든 일 회피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을 피하려는 경향	나는 일에 대한 열정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편이다.	Zhang et al., 2017; Sahinidis et al., 2020
		일의 양이나 난이도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나는 창업을 할 때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낀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성과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다.	
창업 실패 두려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 창업가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	나는 창업실패 시 사업투자자금의 손실이 부담스러운 편이다.	Boso et al., 2019; Lin and Wang, 2019
		나는 창업실패 시 가정파탄 위험이 부담스러운 편이다.	
		나는 창업실패 시 신용도 하락 및 실패자 낙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편이다.	
		나는 창업실패 시 자신감 상실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편이다.	
		실패부담감으로 인해 창업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창업의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동기와 의지	나는 기회가 된다면 창업을 할 의사가 있는 편이다.	Sutrisno et al., 2024;
		나는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다.	
		나는 머지않아 창업할 계획이 있다.	
		나는 다양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할 생각이다.	
		나는 재취업을 하는 것보다 창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는 내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계획하고 노력하고 있다.	

3.3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이 50.5%, 여성이 49.5%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가 77.0%, 20대가 23.0%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68.0%로 가장 많았다.

<표 2> 응답자 특성 요약

	특성	빈도	%
성별	남성	99	49.5
	여성	101	50.5
연령대	20대	46	23.0
	30대	154	77.0
학력	고등학교졸업	24	12.0
	전문대학졸업	21	10.5
	대학졸업	136	68.0
	대학원졸업	19	9.5

Ⅳ. 연구 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항목 간 집중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AMOS 24.0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을 활용했다. 가용자금부족, 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힘든일회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β	C.R.	p	CR	AVE	Cronbach' α
가용자금부족	fin5	.646	fixed		.940	.798	.830
	fin3	.622	8.804	***			
	fin2	.819	8.479	***			
	fin1	.798	8.451	***			
위험회피	ra5	.721	fixed		.925	.805	.788
	ra4	.783	9.030	***			
	ra3	.736	8.795	***			
스트레스회피	sa6	.651	fixed		.953	.775	.851
	sa5	.691	8.176	***			
	sa4	.677	7.988	***			
	sa3	.748	8.627	***			
	sa2	.761	8.757	***			
	sa1	.595	7.124	***			
힘든일회피	hw6	.589	fixed		.945	.779	.805
	hw5	.504	5.907	***			
	hw4	.651	7.164	***			
	hw3	.807	8.176	***			
	hw2	.814	8.211	***			
창업실패두려움	fb2	.687	fixed		.945	.811	.838
	fb3	.757	9.265	***			
	fb4	.843	9.971	***			
	fb5	.733	9.025	***			
창업의도	ei3	.729	fixed		.929	.813	.803
	ei4	.893	9.489	***			
	ei5	.674	8.765	***			

확인적 요인 분석(측정 모형 분석)은 χ^2/df = 1.659, RMR = .044 RMSEA = .058, GFI = .858, AGFI = .819, NFI = .904, TLI = .906, CFI = .92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N/DF (χ^2/df) 값은 1.659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RMR = .044, RMSEA = .058도 기준치(우종필, 2022)에 부합하는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수별 측정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5 이상을 보였으며, 개념 신뢰성은 모두 .9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AVE는 모두 .7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표들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므로 집중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의 결과 Cronbach' α 값은 스트레스회피 .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위험회피 .7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은 이들 사이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므로 신뢰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본 연구의 데이터는 단일 출처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CMB)를 평가하기 위해 Harman의 단일 요인 검정을 적용했다(Harman, 1967). 분석결과는 기준치(50%미만)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인의 분산값이 22.67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통 방법 분산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나타내며, 측정 방법이 데이터에 큰 왜곡을 주지 않음을 시사한다.

4.3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해당 연구에서는 Fornell & Larcker (1981)가 제안한 AVE 제곱근 값(square root of AVE)과 상관관계 계수 사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AVE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 계수보다 클 때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AVE 제곱근 값이 모든 상관계수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가용자금부족	위험회피	힘든일회피	스트레스회피	실패두려움	창업의도	AVE 제곱근
가용자금부족	1						.893
위험회피	.125	1					.897
힘든일회피	.024	.360**	1				.883
스트레스회피	.132	.356**	.444**	1			.880
실패두려움	.228**	.353**	.302**	.415**	1		.900
창업의도	-.151*	-.196**	-.113	.056	-.207**	1	.902

*. p< .05, **. p< .01

4.4 가설검정결과

가용자금부족이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64, CR값이 2.617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 가용자원부족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위험회피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97, CR값이 2.867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2 위험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스트레스회피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277, CR값이 3.878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3 스트레스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는 채택되었다.

힘든일회피가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05, CR값이 1.472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4 하드워크회피는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는 기각되었다.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회피, 위험회피, 가용자금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설검정 결과

Path			β	C.R.	P	검정결과
가용자금부족	-->	실패두려움	.164	2.617	.010	채택
위험회피	-->	실패두려움	.197	2.867	.005	채택
스트레스회피	-->	실패두려움	.277	3.878	.000	채택
힘든일회피	-->	실패두려움	.105	1.472	.143	기각
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197	-2.523	.012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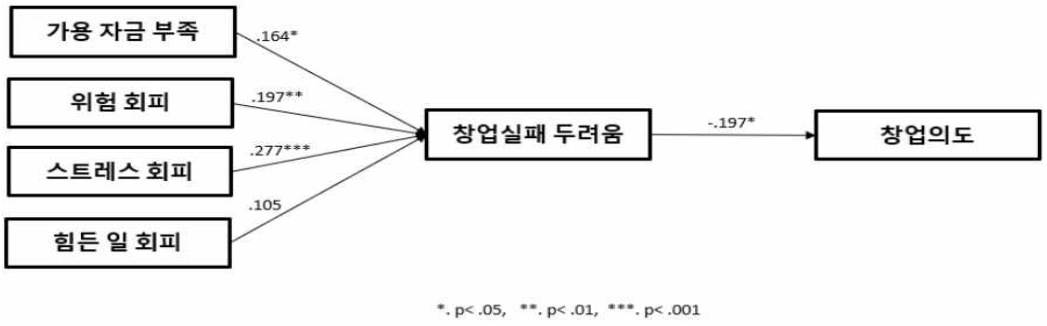

그림2.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 검정 결과

한편 실패두려움이 MZ세대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97, CR값이 -2.523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5 창업실패두려움이 MZ세대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를 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Bootstrapping을 10,000회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유의성 검정은 LLCI와 ULCI사이에 0의 존재유무로 판단하였다(Hayes, 2022). 즉 사이에 0이 존재하면 유의하지 않고 0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검정한 결과 위험회피, 힘든일회피, 스트레스회피는 실패두려움을 매개로하여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의도간 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표 6> 매개효과 가설검정 결과

Path	Effect	β	LLCI	ULCI	검정결과
가용자금부족--->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direct	.116	-.020	.253	기각
	indirect	.032	-.001	.078	
위험회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direct	-.175	-.333	-.017	채택
	indirect	-.039	-.115	-.001	
스트레스회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direct	.262	-.101	.422	채택
	indirect	-.055	-.115	-.002	
힘든일회피--->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direct	-.106	-.260	.048	채택
	indirect	-.021	-.067	-.008	

4.5 논의

첫째, 재정적요인(가용자금부족), 심리적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은 실패두려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요인(가용자금부족)과 심리적 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MZ 세대의 독특한 경험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MZ 세대는 경제적 불안정과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최근의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주요 경제적 하락기를 겪으면서, 이들은 재정적 불확실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은 자금 확보가 어려울 때 창업의 리스크를 더 크게 느끼게 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세대는 위험과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불황과 고용 불안을 겪은 이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이들은 창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크게 느끼며,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킨다. 또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들은 다수의 실패 사례를 접하며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MZ 세대는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높은 가치를 두는 편이라고 한다. 스트레스 회피 성향은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압박과 불확실성은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이들에게 특히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동적요인(힘든일회피)과 실패두려움간의 유의성은 검정되지 않았다.

이전 세대와 달리 MZ 세대는 단순히 힘든 일을 피하기보다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MZ 세대는 일에서 개인적인 성취감과 사회적 가치를 찾으려 한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거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Gallup(갤럽) 조사에 따르면 MZ 세대는 일의 의미와 목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따라서 고된 일에 대한 회피가 직접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MZ 세대는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는 힘든 일을 피하는 대신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화 기술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020년 Deloitte(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MZ 세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힘든 일에 대한 회피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Z세대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스트레스회피, 위험회피, 가용자금부족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회피가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Z 세대는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이들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직업 선택 시 스트레스 수준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창업 과정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예: 자금 관리, 고객 확보, 경쟁 대응 등)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스트레스 회피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구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창업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MZ 세대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가용 자금 부족이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Z 세대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금융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엔젤 투자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은 초기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많은 정부 및 비영리 기관들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MZ 세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초기 자금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MZ 세대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접근성 덕분에 자금 조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자금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스트레스 회피가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자금 부족이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창업실패두려움은 MZ세대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손실을 과대평가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MZ 세대는 창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보다 실패로 인한 손실을 더 크게 인식하게 되며, 이는 창업 의도를 약화시킬수 있다. 특히 MZ 세대는 안정성과 보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의 창업 의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창업실패두려움은 심리적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 및 행동적요인(힘든일회피)과 창업의도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적요인인 가용자금부족과 창업의도간 매개효과는 검정되지 않았다. 심리적요인은 개인의 내면적 성향을 반영하며, 이는 직접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은 창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창업 의도를 약화시킨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회피하려는 성향도 창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증대시키며, 이는 창업 의도를 저하시킨다. 힘든일을 회피하려는 행동적 요인은 심리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업 의도를 약화시킬 것이다. 반면, 재정적 요인인 가용 자금 부족과 창업 의도 사이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가용 자금 부족이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일 수 있다. MZ 세대는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자금 조달 수단을 통해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는 자금 부족이 직접적으로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자금 부족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V. 결론

본 연구의 학술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적 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이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창업 의도 연구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미래 연구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힘든 일 회피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행동적 요인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재고찰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행동적 요인이 심리적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적 요인과 창업 의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발견은 이 두려움이 단순한 결과가 아닌,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는 심리적 요인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창업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창업 의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MZ 세대를 위해, 위험 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는 창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용 자금 부족이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줄이고, 창업 의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1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첫째, 본 연구에서 힘든 일 회피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동적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구체적인 행동적 요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심리적 요인(위험회피, 스트레스회피)과 행동적 요인(힘든일회피)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요인(예: 자기 효능감, 성취 동기)과 행동적 요인(예: 결단력, 인내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MZ 세대의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

우종필(202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한나래

이경화(2024). MZ 세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미래기술융합논문지*, 3(1), 59-64.

Al Halbusi, H., Abdel Fattah, F., Ferasso, M., Alshallaqi, M., & Hassani, A. (2024). Fear of failure for entrepreneurs in emerging economies: Stress, risk, finances, hard work,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31(1), 95-125.

Bhalla, R., Tiwari, P., & Chowdhary, N. (2021). Digital natives leading the world: paragons and values of Generation Z. In *Generation Z Marketing and Management in Tourism and Hospitality: The Future of the Industry*.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Boso, N., Adeleye, I., Donbesuur, F. and Gyensare, M. (2019), Do entrepreneurs always benefit from business failure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8, 370-379.

Bulsara, H. P., & Sharma, L. (2023).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Generation Z: Understanding the role of university support and awareness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Culture and Business Management,* 30(4), 554-575.

Cacciotti, G., Hayton, J.C., Mitchell, J.R. & Giazitzoglu, A. (2016), A reconceptualization of fear of failure in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3), 302-325.

Campopiano, G., De Massis, A., Rinaldi, F.R. & Sciascia, S. (2017), Women's involvement in family firms: Progress and challenge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Family Business Strategy*, 8(4), 200-212.

Caniëls, M. C., & Motylska-Kuźma, A. (2023).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reative performance–the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9(3), 1131-1152.

Doerr, S. (2019). Unintended side effects: Stress test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BIS Working Paper* No. 823.

Doerr, S. (2021). Stress test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Review of Finance*. 25(5), 1609-1637.

Duong, C. D. (2022). Entrepreneurial fear of failure and the attitude-intention-behavior gap in entrepreneurship: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20(3), https://doi.org/10.1016/j.ijme.2022.100707

Elia, G., Margherita, A. and Passiante, G. (2020), Digital entrepreneurship ecosystem: how digital technologies and collective intelligence are reshaping the entrepreneurial proces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50, doi: 10.1016/j.techfore.2019.119791.

Farradinna, S., & Arlena, S. P. (2023).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sonality hardiness and fear of failure to predict achievement motivation adolescents of working mother. *Jurnal Konseling dan Pendidikan*, 11(2), 85-93.

Fattah, F.A.M.A., Al Halbusi, H. and Al-Brwani, R.M. (2022), Influence of self-perceived creativity and social media use in predicting E-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Studies*, 6(3), 119-127.

Ferasso, M. & Grenier, C. (2021), Fostering SME's co-development of innovative projects in biotech clusters: extending the sets of enablers for the knowledge creation process, *Technology in Society*, 67, doi: 10.1016/j.techsoc .2021.101729

Fornell, C. &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Games, D., Sari, D. K., Khairiyyah, N., & Shaikh, H. A. (2023). Entrepreneurial fear of failure and well-being of incubated and non-incubated startups during crises.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anagement.*, doi: 10.1108/jstpm-03-2022-0052

Harman, H. (1967), *Modern Factor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Hayes, A. H.(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Hindrawati, G., Dhewanto, W., & Dellyana, D. (2023). Does inovative millennial entrepreneurship have a role in fostering cyber learning on business performance? A perspective of entrepreneurial agil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24(4), 219-232.

Hofstede, G. (1983), National cultures in four dimensions: A research-based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13(1-2), 46-74.

Kollmann, T., Stockmann, C. & Kensbock, J.M. (2017), Fear of failure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bstacles and nascent entrepreneurial activity: An experiment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3), 280-301.

Lee, C.K., Cottle, G.W., Simmons, S.A. & Wiklund, J. (2020), Fear not, want not: Untangling the effects of social cost of failure on high-growth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57, 1-23.

Lee, C.K., Wiklund, J., Amezcua, A., Bae, T.J. & Palubinskas, A. (2021), Business failure and institutions in entrepreneurship: a systema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Small Business Economics,* 58(4), 1-27.

Lin, S. & Wang, S. (2019), How does the age of serial entrepreneurs influence their re-venture speed after a business failure?, *Small Business Economics*, 52(3), 651-666.

Marshall, D.R., Meek, W.R., Swab, R.G. and Markin, E. (2020), Access to resources and entrepreneurial well-being: A self-efficacy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20, 203-212.

Morgan, J. & Sisak, D. (2016), Aspiring to succeed: a model of entrepreneurship and fear of failu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1(1), 1-21.

Nadia, A., & Abdelmegeed, A. (2024). The impact of psychological stress on personal income, physical health,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entrepreneurs. *OBM Neurobiology*. 8(1), https://doi.org/10.21926 /obm.neurobiol. 2401205

Rachel, A., Ern, X. & Aziz, A. (2024). Fear of failure among perfectionist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valuation and Research in Education,* 13, 643-651.

Sahinidis, A.G., Tsaknis, P.A., Gkika, E. & Stavroulakis, D. (2020), The influence of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risk avers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Strategic Innovative Marketing and Tourism*, Springer

Segal, G., Borgia, D. & Schoenfeld, J. (2005), The motivat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11(1), 42-57

Sexton, D. & Bowman, N. (1984),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ggestions for increasing effective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2(2), 18-25.

Sutrisno, S., Ausat, A. M., Diawati, P., & Suherlan, S. (2024). Do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eer groups promot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during Covid-19 pandemic?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mindset. *Calitatea,* 25(201), 181-195.

Tang, X., Zhu, R. L. & Linjiao, L. (2024).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ntrepreneurial failure fear: Research framework and future prospects. *Applied Science and Innovative Research,* doi: 10.22158/asir.v8n1p85

Tehseen, S., Johara, F., Halbusi, H.A., Islam, M.A. and Fattah, F.A.M.A. (2021), Measuring dimensions of perceived business success among Malaysian and Bangladeshi SME owners, *Rajagiri Management Journal*, 17(2), 102-124.

Van Rijnsoever, F.J. & Eveleens, C.P. (2021), Money don't matter? How incubation experience affects start-up entrepreneurs' resource valuation, *Technovation*, 106, doi: 10.1016/j.technovation. 2021.102294

Wang, C.K. & Wong, P.K. (2004), Entrepreneurial interest of university students in Singapore, *Technovation*, 24(2), 163-172.

Zhang, P. and Cain, K.W. (2017), Reassessing the link between risk avers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the determinants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Research*, 23(5), 793-811.

Zhao, H., O'Connor, G., Wu, J. & Lumpkin, G.T. (2021), Age and entrepreneurial career success: A review and a meta-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6(1), doi: 10.1016/j.jbusvent.2020.106007

The MZ Generation's Fear of Startup Failure : Effects of Financi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Kim, Hyun-bae[1)]
Lee, Su-jin[2)]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ear of failure in starting a business among the MZ generation(Millennials and Generation Z). The research focused on financi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actors affecting this fear of failure and employed empirica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data collected from 200 members of the MZ generation.

Key findings included: Financial factor(lack of accessible finan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fear of startup failure. Psychological factors(aversion to risk and aversion to stress) also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fear of failure. The influence of behavioral factor(aversion to hard work) on fear of failu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ng these, aversion to stress had the strongest impact, followed by aversion to risk and lack of accessible finance. Fear of startup fail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mong the MZ generation.

Furthermore, fear of startup failur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actors(aversion to risk and aversion to stress) and behavioral factor(aversion to hard work)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However,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financial factor(lack of accessible fina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not tested.

These findings contributed academically by offering a more detaile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Practically, the results suggested ways to mitigate the fear of failure to enhanc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the MZ generation.

Keyword: MZ genera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ear of failure, financial factor, psychological factors, behavioral factor

1)First Author, Ph.D Incheon National University, zirokim@naver.com
2)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of Sungkyul University, sjlee@sungkyul.ac.kr

제1 저자 소개

■ 김현배(Kim, Hyun-bae)
■ (주)인폼더리어 창업컨설턴트, 국립인천대학교 일학습병행사업단 전담교수, 남서울대학교 일학습병행사업단 초빙교수, 경영학박사
<관심분야> : 창업, 국제경영, 마케팅, 조직관리 등

교신 저자 소개

■ 이수진(Lee, Su-jin)
■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경영학박사
■ 베이비부머 경기스쿨 유통·물류 전문가 양성과정 강의 등
<관심분야> : 생산운영관리, 서비스경영, 품질경영, SCM전략, CRM 등